

문화특집 '생활문화운동'의 위상과 현상황 점검 <上>

소비·퇴폐·향락 문화 깨뜨릴 생활운동

김수목·최재·향락·소비·문화
바로 흘러가고 있는 대중문화를
정화하고 우리의 문화를 확립
하기 위해 '생활문화운동'의 위상
과 의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
의 관심과 참여를 고무하기 위
해 2회에 걸쳐 서문과 주원본
활동과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
다. <편집자 주>

'생활문화운동'의 정의는 '문
화'라는 단어가 갖는 개념의 포
괄성으로 인해 뚜렷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지 87년 이후 민족적 부흥운
동으로 시작된 '민족생활문화운
동'에 대한 내용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있어서 '생활문화운동'
은 반의세민주주의와 이념을
내걸고 학생들의 생활속으로 나
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다. 물론 현재의 소비적, 향락적
인 문화를 배격하고자 건전한 대
문화의 창출이라는 것 또한 그러
한 방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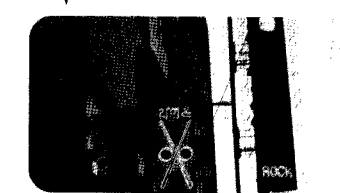
지난 학기 한양대학교 총학생
회는 특기학과 심층 회계유형업

소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문화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규정
하고, 특기과 주부생들을 벌
여 학생들과 함께 함의문화를 간

노래방이 존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실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활문화운동에는 개량한복
입기와 전통차시가지 등이 있다.

에 학생들에게 파고 들어 학생들
이 공동체적인 삶을 벗어나 이기
적이고 개인 의식을 갖도록 조장
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서울 캠퍼스 주변의 특기과들



경희 공동체의식 회복 위한 노력 필요 '유원지'란 일부 그릇된 인식 벗어나야

이 있었다.
이 활동으로 지금 한양대 주변
에는 특기과가 27개이고 7~8개의

이러한 우리의 것을 찾자는 것
은 단순히 회계회계회를 배격
한다는 것과 더불어 부지불식중

의의가 있다.
각 대학들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여기까지 활동의 문제를 담고 있
다. 본교 서울캠퍼스 주변의 문
화환경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경희 승리에 일등공신의 역할 — 응원단장 이한갈(체대 체육·3)군을 만나



변면, 등원 때 매료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응원단을
체대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학생
들의 시각은 가장 큰 고민거리
다. 이에 대해 그는 "실제로 동
작을 담당하는 훈련부의 80%는
체대와생이지만 이러한 구성 비
율은 훈련이 되고도 시간을 많이
배정하는 응원단의 특수성 때문
이라고 풀이한다.

이런면 인공관중 현상을 해소
하려는 그의 노력은 신임단원 모
집과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체
대 학생들이 '훈련부'에 대해 지
원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응원단의 발을 지지하면서 연주
를 담당하는 'Bunkers'의 경우
체대 학생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학년 초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습하고, 또 새로운 동작 개발에
몰두한다. 이러한 단원들의 열정
은 기자가 응원단장을 방문한 목
요일 밤에도 유감없이 발휘돼서
너머의 단원이 개인별로 연습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응원단은
경기 시작 두 시간 전에 도착해
행프 등의 장비들을 손수 준비해
하고 캐니버거 거르는 경우가 많
다. 그래서인지 후배에 대한 당
부름 듣는 질문에 그는 미안함부
로 내뱉었다.

경희응원단장 이한갈(체육·3)
군을 학내에서 7중 응원단에서
만나보았다.

원할한 키에 가늠할 얼굴, 잘
잡힌 이미지로 즐기는 그는 요즈
음 '절친한마음'에서 선보일 응
원시범 준비에 여념이 없다.

무대에서 몸짓 하나로 관객을
안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응원단에 들어가는 그에게는, 단
원들 대다수가 밝히는 그러한 입
단 동기 외에도 남다른 이유가
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고 시교성
이 뛰어난 그는 '오리엔테이션'에
문종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응원

단에 가입했다"고 한다.
단장으로서 응원단을 이끌고
있는 그는 역시 경기장에서 경희
가 이길 때 팀이 웃는다. 90년
학년 초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대하 춘계리그에서 축구부가 우
승했을 때 신임단원으로 큰 기
쁨과 보람을 느꼈고, 경기 후 응
원했던 전학생이 동대문운동장에
서 회고까지 행진할 때도 자신은
피곤한 줄 몰랐다고 한다.

에너와 달리, 응원단에 들고자
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타단체 학생들은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한다.
응원단은 월, 수, 금요일 하루
세시간씩 이미 개발된 동작을 연

습하고, 또 새로운 동작 개발에
몰두한다. 이러한 단원들의 열정
은 기자가 응원단장을 방문한 목
요일 밤에도 유감없이 발휘돼서
너머의 단원이 개인별로 연습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응원단은
경기 시작 두 시간 전에 도착해
행프 등의 장비들을 손수 준비해
하고 캐니버거 거르는 경우가 많
다. 그래서인지 후배에 대한 당
부름 듣는 질문에 그는 미안함부
로 내뱉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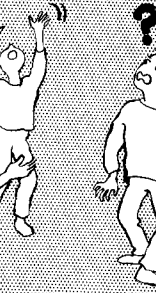
"보가 안소리를 정도로 팔을리
며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하
고 한편 믿고 갈 때라곤 대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모든 어려움
을 이기고 해고한 소속감과 단
결, 절의 사랑과 정신으로 열심
히 활동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1989년 학도 호국단 응원부로
발족한 응원단은 현재 2대 단장
을 배출했으며, 지난 5월에는 가
장 큰 연중행사인 '경희 응원 콘
서트'를 개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이 본
교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승리
와 애착을 갖고 응원단과 함께
어우러져 '경희'를 펼치게 응원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사 자 진 전



(김정현 기자)

문화단신

박재호교수, 제3회 개인전
현대미술관에서 29일부터

박재호(미교·서양화)교수가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현
대미술관에서 제3회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
이미지'라는 주제로 추상화 수
십 점을 선보인다. 추상의 자유
로움, 자유로움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선과 색의 움직임,
그리고 동선(動線)을 따라
은근한 어조로 배어있는 빛과
어둠의 깊이와 공간감, 그것이
새어나오고 가리워지는 틈새로
언뜻 비치는 세의 비상, 순구지
오름이 던져주는 보편적 의미,
이 모든 것들이 박재호 교수의
회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이지
다. 박교수는 68년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81년 제30
회 국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 수많은 공로이후에 참여
했으며 79년 8월, 88년 두
번 '개화'가 있다.

정복근작 '지킴이' 공연
30일부터 크라운에서
정경대 극동아티스트(태·태)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크라운
에서 오후 5시30분에 연극 '지
킴이(정복근작)'를 공연한다.

'지킴이'는 무시의 순우리말
로, 구한말 보부상집안이 현대
사의 굴곡을 겪으며 독립대자본
으로 성장하며 몰락하는 과정속
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
습을 그렸다.

사회개발국 '미구간' 공연
김보은·김진관·김진관 무대하
극단 '공연'이 최근 사회개
인 물의를 빚고있는 김보은·김
진관을 무대하한 사회개발
국 '미구간' (최승원)을 10월
30일까지 미래대 소극장에서 공
연한다.

오후4시30분·7시30분에 2회
공연하며 입장료는 6천원이다.
(745-8835)

신간안내

'사람의 생애' 출간

김정현의 장편소설 '사람
의 생애'가 출간되었다.

사람의 생애는 소년 1
년 후 사망하는 연인 두 쌍을
등장시켜 사별한 문인 사회성을
파헤치고 있다. 한 쌍은 '김보
기의 이별—과배와 진실적인 슬
라—희망', 다른 한 쌍은 '절박
—절박기의 슬라와 진실적인 패
배'를 저술했던 박재호 교수의
현실적 안목과 내면, 현실
인식의 혼미함 등이 무엇을 통
해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일목요
연하면서도 생생하게 그려낸 이
소설은 역사 사회적 담대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작가 김정현은 1964년 서
울에서 출생했으며, 남한 역사
현실의 담대적 깊이를 종합적인
장편소설 '구루'를 발표한 바
있다.

<제1권 555페이지>

'중국여성 사회사' 출간

중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다룬 '중국여성
사회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시대별로 총5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끝에는 저자
들의 취미가 실려있다.

<알림서지권 55페이지>

불량정권의 불량방송

순수한 공보정권은 올해 6월말 KBS 제 1TV '우리들의 문제'에 출
연해서 "지금의 언론 천국"이라며 "언론이 정부와 더불어 국정을 공동
책임지고 있기때문에 언론은 통치기구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세일이 가가와 오는 오늘, MBC는 파업중이다. '언
론천국'에 사는 언론인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량정권 아래서 불량방송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다.

언론이 멍들고 사회가 멍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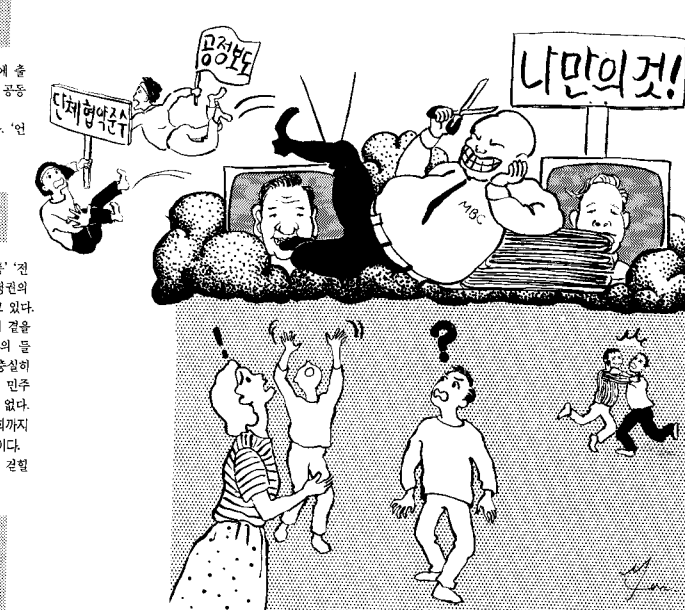
불량정권이 장악한 우리의 신문, 방송 / '대통령 동정했다고 호통' '전
교조 보도는 원천봉쇄' '언기부원 신원은 아직도 상백', 언론이 정권의
장악으로 망하고 있다.

언론이 국민의 곁을
떠나 일개 정권의 물
리리 노릇을 충실히
하는 한, 사회의 민주
화를 생각할 수 없다.
멍든 언론이 사회까지
멍들게 하는 것이다.

관제 억구름이 걸릴
날은 언제일까?

이제, 언론자주를 위해
학우들이 나서야 합니다

MBC 언론동지들의 정당한 파업 / 결국 승리합니다



신문·방송이 하늘을 가리고 있다

세상을 어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시대기원